

## 농어촌공사, 제주 세화항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 쇳락한 어촌 경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진중)는 ‘세화마을협동조합’과 함께 ‘2025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 상은 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한국경관학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우수한 도시·지역 경관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경관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 공모전이다.

수상작인 ‘숨비, 바다가 숨 쉬는 곳 - 제주 세화항’은 쇳락한 어촌에 문화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자생력을 갖추게 했

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숨비’는 해녀가 물질을 마친 후 내쉬는 숨소리를 뜻하며, 공사는 이를 주제로 세화마을의 고유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과거 세화리는 조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잃어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과 여촌뉴딜300사업(해양수산부)을 연계해 경관 개선을 추진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을 공

동 설계자로 참여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100인 원탁 토론회’와 ‘마을사업 전문가 전담팀’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 노후 항만시설과 콘크리트 구조물은 숨비 소리길과 숨비 해변정원으로 탈바꿈했고, 오폐수 처리장과 마을 예식장 등 방치 시설은 숨비 빌레파크와 질그레이 거점센터로 재단장해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경관 개선은 경제적 효과로 이어졌다. 주민 주도형 운영 조직인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카

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해 경관 보전과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현재 숨비 빌레파크와 질그레이 거점센터는 연 8만여 명이 방문하고, 세화마을협동조합은 연 매출 3.3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청양 H2O 센터’와 ‘충주 유기농 체험교육센터’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2회 연속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농어촌 개발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숨비 소리길(개선후)



▲질그레이 거점센터(개선후)

## 농작물·농업시설물 한파 대비 관리 당부

###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권 한파 예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2일 밤부터 충청·전라 서해안, 제주 지역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번 주 중 후반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예보됐으며, 농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모레(3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무거운 눈이 예상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경기내륙과 강원내륙 및 산지 -10℃ 안팎)으로 내려가 서릿발 및 결빙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시설원예, 노지 월동작물, 과수, 축산 등 농가별 한파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시설원예 농가는 난방기 정상 가동 여부를 재차 점검하고, 보온커튼·피복재 등 보온 자재가 손상된 곳은 서둘러 보강해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특히 눈 예보 지역에서는 차광막 제거, 보강 지주 추가 설치, 시설물 외부 고정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눈 무게에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한다. 적설 후 신속한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설

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작업 동선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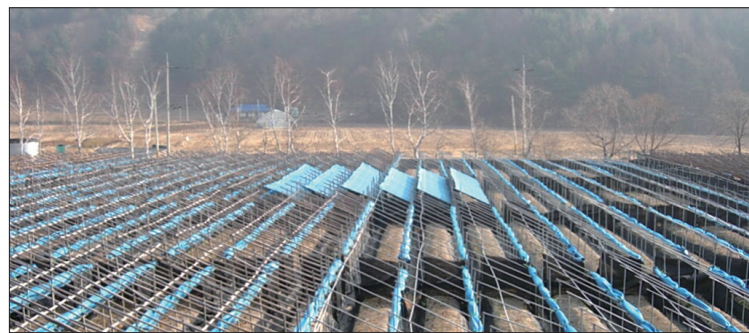
노지 월동작물 농가에서는 기존 급강하로 작물이 얼지 않게 비닐, 부직포, 볏짚 등 보온 자재로 덮어준다. 또한 밭 배수로 정비, 땅 놀러주기 등으로 서릿발 피해를 방지한다. 과수 농가는 나무줄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는지를 살피고, 보온재로 감싸거나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를 줄기에 고르게 칠해 동해(얼어붙음)를 예방한다.

축산 농가는 축사 단열 보강과 함께 전열기·난방기 안전 점검, 전기 누전 여부 사전 확인 등 화재 예방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또한, 급수 시설이 동파되지 않게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가축 보온·사양관리 기준을 준수

해 피해를 방지한다. 농촌진흥청은 법정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5.11.15~26.3.15)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협업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상습 피해 지역 현장 지도 강화, 농업인 대상 대설·한파 대응 요령 재홍보 등 협업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 발생 시 현장 기술지원단을 신속하게 파견해 피해 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이번 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 영하권 한파, 강풍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농업 분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농가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 사전 점검과 보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숙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겨울철 농업시설물 안전관리요령\_인삼해가림시설 걷는 모습(농진청 제공)

## 농기평, 무병묘 기술로 과수 산업 판 바꾼다

### 무병묘로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기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수 무병묘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와 외국산 과일 유입 증가로 국내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수의 높은 바이러스 감염률은 주요 문제로 꼽힌다.

2023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

르면 사과 농가의 97.3%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염은 사과·배·복숭아의 무게를 18~52% 감소시키고, 사과·포도의 색소 함량을 최대 80%까지 떨어뜨려 생산성과 상품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관 연구기관인 국립종자원은 2020년부터 본 연구과제를 통해 과수 무병화 효율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무병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 주요 5대 과종의 무병묘 공급률은 2020년 1.0%에서 2024년

12.9%로 약 13배 증가했다.

연구를 통해 생장점 배양, 열처리, 초저온처리,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 처리 등 핵심 기술을 확립하고, 과수 분야 최초로 RNA 간섭(RNAi) 기술을 적용해 무병화에 성공했다. 또한 포도열룩반점바이러스(GPKV) 등 9종 바이러스 동시 진단이 가능한 다중진단법과 DNA 바코드 시스템을 개발해 무병묘 판별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사과(후지참피온, 시나노골드), 배(신고), 포도(MBA, 자옥), 복숭아(경봉, 신비) 등 12품종의 무병화에 성공했으며, 이 중 6품종은 모수를 대량 생산해 농가에 보급했다. 실제 식재 농가 조사 결과, 사과 ‘홍로’는 생산량이 36.7%, 당도가 3°Brix 증가했고, 포도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약 1.22배 상승했다. 또한 비상품 비율은 50% 이상 감소하고, 재배 과정에서 바이러스 재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연구는 이상기후와 병해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성과”라며, “무병묘 대량생산 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무병묘 효과 분석 사진(농기평 제공)

## 농정원, 한국공공브랜드대상 2관왕

### ‘갯생 캠페인’ 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11월 28일 열린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과 국가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은 ‘레디, 갯생 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갯생 캠페인)’은 청년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활용해 농업·농촌을 도전과 체험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기획한 청년

참여형 캠페인이다. 심사위원단은 “청년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정책 메시지와 성공적으로 접목했고, 현장 중심 운영 방식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국가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개식용종식 교육·홍보 캠페인’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식용종식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개 사육농가 조기 폐업을 지원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한국공공브랜드대상은 공공브랜드의 정책성, 공공성, 소통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며, 심사위원단은 두 캠페인이 청년층 대상 농정 메시지 확산과 동물복지·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했고, 온·오프라인과 언론을 아우르는 통합 홍보 전략도 돋보였다고 밝혔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이번 2관왕 수상은 농업·농촌과 동물복지의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시민이 일상 속에서 농업·농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개식용 종식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공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진흥청

#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 5가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농장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1

(출입차량) 2단계 소독(1차 고정식 소독기→2차 고압분무기)  
(출입자) 전용 의복·신발 등 착용, 출입 전·후 소독

2

(축사 출입) 전실에서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및 색깔이 구분된 장화 착용 후 소독 실시

3

(부출입구) 소독·방역시설이 미설치된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미설치된 축사의 뒷문(쪽문) 폐쇄

4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매일 소독 실시 (기계·장비) 반입 시 농장 진입 전에 세척·소독 실시

5

(야생동물 차단) 축사 구멍 또는 틈새 메우기, 차단망 설치·보완 등

폐사 증가, 산란을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 1588-4060, 1588-9060